



## 日·中共特許相談所 開設 兩國간의 技術特許移轉 圓滑化 위해

日本 國際貿易促進協會(會長:櫻內義雄)는 日·中共間 技術特許의 移轉을 圓滑히 하기 위해 中共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 共同으로 「日·中共特許相談所」를 開設했다.

同 相談所에는 中共特許代理部로부터 2名의 辨理士가 參加, 日·中共의 工業所有權의 移轉에 관련된 諸問題에 응하고 있다. 技術特許의 保護는 日·中共經濟交流를 促進시키는데 日本側 企業으로서는 큰 장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작년 中共이 파리條約(國際特許條約)을 批准하고 동시에 特許法을 施行함으로써 日本企業의 中共에서 的特許出願도 本軌道에 오르기 시작했다.

同相談所의 開設에 의해 日·中共間의 技術移轉에 拍車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은 현재 北京·上海·香港에 特許申請接受창구를 開設, 이곳을 經由해서 特許局이 各國의 特許申請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機關을 통해서 日本은 약 1,700件의 特許申請을 했다.

이미 작년말부터 금년에 걸쳐 日그를 관련 特許가 數件 確保되어 있으나 申請에 相關한 事後處理, 特許保護範圍 등

日本 企業이 細目에 대해서 충분히 把握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同 相談所는 2名의 中共側 辨理士를 中心으로 日本企業에 어드바이스와 具體인 申請에 수반되는 事後處理 등을 비롯, 特許確立後에 일어나는 트러블에 대한 仲介도 할 예정이다.

## 美, 담배등 市場 조속開放요구 韓·美 GSP協商, 6月 워싱턴서 再開

韓·美 양국은 美國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제2기 운용과 相關, 2日 商工部 대회의 실에서 양측 입장을 說明하는 실무협상을 가졌으며 오는 6月 末에 워싱턴에서 協議를 再開키로 合議했다.

이날 會議에서 美측은 韓國의 쇠고기·담배·컴퓨터 등의 조속한 市場開放과 반제마루판 등 목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국내진출外國銀行에 대한 영업제한완화, 노동권保護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知的所有權保護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301조 협상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측은 경제현실 및 꾸준한 經濟自由화조치를 설명하고

日·中共間의 經濟交流는 약 60개의 合併企業의 設立을 中心으로 技術協力 등 여러 方面에 걸쳐 있는 데다가 中共側은 특히 技術移轉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今後 第7次 經濟5個年計劃의 實行과 並行될 조짐이어서 日本企業의 中共에 대한 特許申請도 증가할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美國의 GSP 政策決定에 반영돼야 한다고 強調했다.

## 日, 特許廳 移轉 5월부터 7月 사이

日本 特許廳은 신중합청사 건설에 따라 現在の 廳舍를 내년 부터 철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本廳舍에 있는 部署가 5月 상순부터 7月 초순에 걸쳐 移轉할 계획이다.

移轉은 長官室·總務部가 祝田稿 合同廳舍(千代田區 霞か關一丁目一番二號)에, 나머지 部署는 아쿠모리빌딩(港口赤坂一丁目 12~32)에 분산 수용된다. <㉞>